

[6~7]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은 선(善)이다. 각각의 선이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면 최고선이 된다.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의 필수 요소는 중용의 덕이다.
 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신(神)과 하나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중용의 덕은 일시적 행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유덕한 삶과 행복을 별개의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중용을 상황과 무관한 산술적 중간의 상태라고 본다.
 - ③ 을은 신이 창조한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현세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로 본다.
 - ⑤ 갑, 을은 신이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참된 행복이 완성된다고 본다.

7. 갑이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A는 최근 성적이 떨어져서 방과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다. A는 친구들과 놀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 ① 놀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렴.
- ② 절대자의 뜻에 따라 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렴.
- ③ 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실천의지를 기르렴.
- ④ 공부와 놀이가 가져올 쾌락의 총량을 계산해서 행동하렴.
- ⑤ 공부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이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렴.

8.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 갓난 아이 가운데 제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없고, 자라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없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인(仁)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의(義)이다.
 을: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선왕(先王)은 그 다툼을 싫어하여 예의와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 보기 >

ㄱ. 갑은 예의(禮義)를 통해 악한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작위(僞)를 일으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이기적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상인과 제조업자 등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국가는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 유효 수요를 늘려야 한다. 국가가 빈 병에 돈을 채워 땅 속에 묻은 다음, 개인 기업들로 하여금 파내게 한다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목적이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며 현존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건강 개선의 지속적인 과정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A</div> </div>

- ①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것입니다.
- ② 경험과 관찰이 아닌 이성적 추론만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 ③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행위 법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 ④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11. (가) 사상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우주 만물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五蘊)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온은 과거, 미래, 현재 어디의 것이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름답든 추하든 간에 자세히 관찰하고 사유하고 분별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공(空)한 것이다.
(나)	

< 보기 >

ㄱ. A: 윤회(輪廻)에 따라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는가?
 ㄴ. A: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인가?
 ㄷ. B: 불성(佛性)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ㄹ. B: 우주 만물은 상호 의존하는 인과(因果)적 관계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천하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理]가 있습니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습니다.</p>	<p>아닙니다.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습니다. 마음 안의 양지(良知)를 발휘해야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p>
<p>갑</p>	<p>을</p>

< 보기 >

ㄱ.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가?
 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만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ㄷ. 앎[知]과 실천[行]의 선후는 나눌 수 없는 것인가?
 ㄹ.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곧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을: 인간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모르는 자신의 무지(無知)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참된 앎을 깨달아야 한다.

- ①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됨을 모르고 있다.
 ② 개인의 유용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모르고 있다.
 ③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④ 가치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⑤ 감각적 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4.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發)함에 기(氣)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타니 기를 겸한 것이다.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발하는 기에 이가 탄 것이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사단만 못하다.

- ① 갑은 사단을 칠정과 마찬가지로 순선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사단을 성(性)으로 보고 칠정을 정(情)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같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칠정은 사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15. (가), (나)의 이상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공산 사회에서 개인들은 더 이상 분업에 종속되지 않으며 노동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 또한 각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나) 유토피아에서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 잠 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모든 물품이 풍요롭지만 검소함을 추구하기에 누구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 보기 >

ㄱ. (가)는 국가에 의해 자유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ㄴ. (나)는 사치나 낭비가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ㄷ. (가)는 (나)와 달리 계급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된 사회이다.
 ㄹ. (가), (나)는 소유에 있어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는 것은 인간이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나며,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져서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까닭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되므로 고독하게 된다.

- ① 현실에서 삶의 주체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신은 없다고 본다.
- ③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실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 ④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본다.

17.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인격과 지혜를 갖추게 된 철인(哲人)이 통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국가는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개인들로부터 자연권을 양도 받은 절대 군주가 통치해야 합니다.

- ① 갑은 다수결의 원리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통치자가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국가를 자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성립된 권력기구로 본다.
- ④ 을은 인간의 이타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유일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본다.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즉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다원주의적이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그 나름의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거기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분배된다.

< 보 기 >

- ㄱ. 개인의 필요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기 위한 단일한 기준이다.
- ㄴ. 가상적 상황에서 분배를 위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야 한다.
- ㄷ. 특정 영역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한다.
- ㄹ.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계산된 쾌락의 양이 커질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욱 커지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기를 기꺼이 바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 ① 선의지에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가?
- ② 사회적 유용성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④ 도덕적 가치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가?
- ⑤ 도덕 법칙은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가?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한국의 근대 신흥 종교 사상인 (가), (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가)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天心即人心]이다.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실천하면, 한울님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

(나) 일원상(一圓相)은 바로 우리의 성품, 곧 자성(自性)의 원리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일원과 같이 뚜렷해서 어느 곳에 물들거나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 학생 답안

(가) 사상은 ㉠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워 서학(西學)에 반대하였으며, ㉡ 반상(班常)과 남녀노소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나) 사상은 ㉢ 동양의 정신 개혁을 통해 물질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가)와 (나)는 ㉤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